

# 담양, 문화예술 도시로 한 걸음 더



오는 8월29일까지 담양 담빛예술창고에서 열리는 '담양현대미술작가전-청죽예찬' 전에는 담양에서 활동하는 윤운덕·김재성·박화연·인춘교·김재민 등 11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담양, 작가들과 예술 관광 문화도시를 꿈꾸다.' 한지와 먹으로 자신만의 수묵세계를 열어가는 정광희 작가, 동화적 상상력이 넘치는 조각 작품을 선보인 위재환 작가, 거친 붓터치로 생명력 넘치는 화면을 만들어내는 박성완 작가.

담양 담빛예술창고(관장 장현우)에서 열리고 있는 '담양현대미술작가' (8월 29일까지)전에서 만나는 작가들의 면면은 흥미로웠다. 전시에 초대된 11명의 작가들은 담양 출신이거나 담양에 작업실을 두고 활동하는 이들이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작가들이 담양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 1-2년 사이 거주 작가들이 늘었다.

담양군은 작가들이 실제로 '머물면서' 자신의 작업을 펼쳐갈 수 있는 '예술가들의 거점'을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작가들에게 작업공간을 내어주거나, 그들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다.

담양은 죽녹원, 메타세쿼이아길, 관광제림 등 유명 명소를 품고 있는 고장이다. 몇년 전부터는 특색 있는 문화공간들이 속속 문을 열면서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곳으로 인기가 높다. 그 중심에는 지난 2015년 문을 연 후 매년 15만명이 다녀가는 담빛예술창고가 있다. 오래된 양곡창고를 개조

한 담빛예술창고는 전시실과 대형 문화카페를 갖추고 다양한 기획전과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 연주 등 풍성한 음악공연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관을 오픈, 전시 공간이 더욱 넓어졌다. 또 양조장을 리노베이션 한 해동문화예술촌 역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죽예찬(靑竹禮讚)'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30대-60대까지 회화, 조각, 영상, 설치, 도예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본관에 전시된 정광희 작가의 '나는 어디로 번질까', '자성의 길' 시리즈는 우연이 만들어낸 먹의 번짐과 한지를 작은 구슬처럼 문채 개성있는 조형감을 보여주는 작품들로, 뒀헨 레지던시에서 선보였던 영상물도 흥미롭다. 또 창평 보건소와 흥공 시위 장면을 담은 박성완 작가의 작품, 그릇에 가득 담긴 밥과 찹새, 그림 속 생선을 쳐다보는 고양이의 모습이 익살스러운 김재민 작가의 채색화, 윤운덕 작가의 몽환적인 회화작품도 만날 수 있다.

신관에서는 대형 설치 작품이 눈에 띈다. 폐품으로 만든 거대한 동물 조각상과 인물상이 만난 위재환의 '서투른 여행자'와 그물, 도자기 등으로 구성된 김지준의 설치 작품 '연못+서로를 드리우

## 정광희·박화연 등 담양 작업 11명 담빛예술창고 '청죽예찬' 전 공모 통해 작가에 작업공간 제공 향후 오픈스튜디오도 운영

다+하늘'이 한 공간에서 어우러져 흥미로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또 다양한 종류의 수없이 많은 편을 일일이 찾아 독특한 조형성을 만들어낸 김재성 작가의 작품과 라규재·인춘교 사진작가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박화연 작가의 영상 작품 '느린 발 느린 손'은 담양에서 살농사를 지으며 가족을 건사해온 작가 자신의 어머니를 비롯해, 보이지 않는 여성들의 노동을 그들의 '발'로 풀어낸 작품이다.

전시 참여작가들은 김재성·윤운덕 작가처럼 담양 토박이도 있고, 공모를 통해 담양에 작업실을 마련한 이도 있다. 군은 100평 규모의 옛 동산의 원을 리모델링했고 공모를 거쳐 정광희, 김지준 작가가 입주했다. 기획자이기도 한 정위상무 작가는 수제비집이었던 40평 공간을 리노베이션한 레



## 문화장터 '누리랑개'

16일 계림1동 행정복지센터

광주문화재단은 문화누리카드 문화장터 '누리랑개'를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한다.

'누리랑개'는 누리카드 이용이 어려운 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누리랑개'는 광주시 동구 계림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며 문화(도서·음반·공예품·사진)를 비롯해, 체육(운동용품), 관광(여행상품) 분야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10여 곳이 참여한다. 당일 문화누리카드 결제자 100명에 사은품을 증정한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062-670-7444/7448.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인도신화 랜선 여행으로 독자들을 초청하는 북콘서트를 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아시아문화원(ACI)이 주한인도문화원과 공동으로 인도 이야기 그림책 북콘서트 '산을 들어 올린 크리슈나'를 개최한다.

오는 9일 오후 3시 30분 ACC 어린이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이번 북콘서트는 스크립리야라가나탄 주한인도대사가 이야기 그림책 '산을 들어 올린 크리슈나'와 인도 문화를 한국의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인도 작가 아니타 나이르는 책 내용을 힌디어로 읽어준다. 한국의 그림 작가 이주미는 이야기 배경이 된 인도 각 지역을 소개하고 이야기그림책에 나온 그림 그리기 체험을 진행한다.

그림책 '산을 들어 올린 크리슈나'는 인도인이 가장 사랑하는 '목축의 신' 크리슈나의 면모와 웅장한 인도의 자연을 고스란히 담았다. 생동감 넘치는 표현과 묘사로 전통과 자연을 조화롭게 섬기는 인도인의 생활문화와 의식세계로 이끈다.

행사는 ACC 페이스북북과 인스타그램 공식 채널을 통해 생방송 할 예정이다. 문의 062-601-447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우리 이웃 이야기 '하하하 우습다'

화순 출신 배다인 동화작가, 4편 가사체로 담아

형식이 새로우면 내용 또한 새로움으로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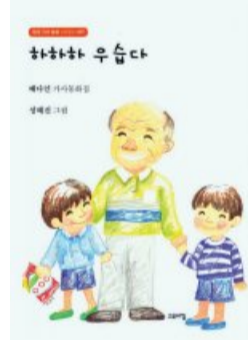
화순 출신 배다인 동화작가가 친숙한 리듬감과 울동감이 가미된 가사체로 동화책을 펴냈다.

한국 가사동화 100인선 기획으로 출간된 '하하하 우습다'는 리듬을 살려가며 한 문장 한 문장 완성한 작품집이다. 모두 4편의 작품이 실린 창작집에는 상상력과 창의력, 아동의 정서와 감성 발달

에 초점을 둔 동화가 실렸다.

배 작가는 창작 배경에 대해 "학교에서 지켜야 할 질서와 규칙이 있고, 가정과 사회에도 마찬가지로 지어둔 문약에서도 일정한 형식과 규칙이 있다는 걸 가사동화를 접하면서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표제작 '하하하 우습다'는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로 인해 이사를 가야하는 할아버지 이야기



다. 할아버지는 돈이 없어 아파트로 이사를 가지 못해 하우스로 거처를 옮겨야 하는 처지다. 손주는 왜 할아버지가 재개발에 동의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많은 이들을 위해 양보를 했다"고 손주에게 말한다.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소시민이지만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진다.

다른 작품 '동방예의지국'은 권위만 내세우는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들에게 본 모습을 듣기는 어른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게임 끝이 아닌 시작?'은 이층에 사는 할머니를 무시위하는 아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 할머니로부터 따뜻한 배려를 받는다는 내용이다.

한편 배 동화작가는 조선대 대학원 국문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06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화가 당선됐다. 현재 조선대 국문과와 광주교육대학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대산문화재단 동화부문 창작기금 수혜를 받았다. 지금까지 '은골무', '파도 너머 푸른 꿈', '고양이가 데려간 여행'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